

바울 서신 로마서 15장을 펴봅시다.

14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느끼는 것과 가책을 받는 것과 우리의 의견에서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바울은, “고기를 먹을 만한 강한 믿음을 자들이 있고, 믿음이 연약하여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는 자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나와 꼭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에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나와 꼭 같은 느낌을 가지지 않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권고하는 말은, 당신이 생각 할 때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공존하는 것이 옳으며, 작은 의견의 차로 인하여 서로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14장에서 강조하는 점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보라는 듯이 자신의 강한 믿음으로 양심에 가책이 없다 하여 그들을 실족케 하는 일을 삼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따라 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고기를 먹는 것이 그들을 넘어지게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며, 꼭 먹어야 한다면, 집에서 홀로 조용히 먹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는 고기가 우상 제물로 올려졌던 것을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 그 고기를 먹을 때에, 양심에 거리낌이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고기를 먹는 일에 아무런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양심에 가책이 없다고 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보라는 듯이 먹는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된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가 계속 자기의 강한 믿음을 따라 행한다면,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지게 되는데, 왜 그들을 위해 조심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15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제목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 15장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 대한 마음 가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5:1)

우리가 내 자신만을 기쁘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 갈비를 먹을 것이야!’ 라고, 내 주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나의 하는 행동을 보고, 넘어질 만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형제가 있을 때에, 비록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신앙 양심상 아무런 가책을 받지않는다 할지라도, 그 형제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시험을 받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찌니라(15:2)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세운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요구를 많이 받아 왔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느끼는 것을 수궁하여 그들과 같이 행하기 위함도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질 때에, 죄책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함도 아니며,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을 따라 행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양심을 따라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고상한 삶이 됩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에 본을 보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15:3)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표본이 되십니다. 그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 하시기를, “나는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노라. 내가 나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노라” 고 하셨습니다. 좋은 법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은혜롭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은 비록 나의 신앙 양심에 가책이 없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15:4)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며, 이해하는데 있습니다. 둘째는 말씀을 통한 인내와 안위를 인하여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소망 사이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소망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놀랍게도 소망이 얼마나 확대되며, 크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시 42:5) 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믿는 자의 평생에 가져야 할 소망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며,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소망이 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속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말입니다. 절망에 빠진 시편기자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격려하여 말하기를, “나의 영혼아, 네가 왜 낙망하며, 왜 절망에 빠져 있느냐? 왜 마음이 상하여 있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좌 위에 계심을 잠깐 잊은 까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좌에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 버릴 때에, 어떤 어려운 일에 대해서 낙망하고 불안하여 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속히 잊어버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가 그의 것임을 얼마나 속히 망각할 때가 많은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인내로써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끝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곧 인내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과 인내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읽고 깨달을 때에,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얻기 위하여 믿음과 인내로써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하시도록 믿음과 인내로써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나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다 망치게 되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계획 시간보다 항상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인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활에서 지금 당장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 한달 썩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13년이나 기다릴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와 성경의 말씀의 안위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인내의 하나님(15:5상)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하시나요? 하나님은 참으로 인내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길이 참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밖에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에 비하면, 나는 몇 초의 시간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천분의 일초도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초, 분, 시간, 날, 주, 달, 년 수로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온, 즉 영원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겨우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영역 밖에 계시고, 우리들은 시간의 영역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왕국을 이 땅 위에 이루시는데,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며 인내하신 것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인내를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15:5)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되심과 같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위로해야 하며, 서로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인내하심을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인내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인내함을 감사히 생각하지만, 나는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당신이 그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른 사람에게 인내하며, 안위해야 할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15:6-7).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봉사할 때에, 우리 서로가 사랑과 안위와 인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과 같이 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당신이 절대적으로 받을만한 완전한 이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너는 가서 자신의 행동을 깨끗이 하고 다시 오라, 그러면 받으리라” 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가 얼마나 그렇게 흉측하게 보이는 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는 얼마나 눈이 멀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눅 6:42) 고 하셨습니다.

왜 내가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가 그렇게 잘 보일까요? 이 모든 것이 사랑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몹시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잘못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한다면, 이웃의 작은 실수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서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에 반항하는 문화혁명 기간, 곧 히피운동 기간 중에 흥미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히피들이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만 메고 온다면, 받아들여졌다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복장으로 교회에 온다면, 언제든지 당신들을 환영하며, 영접할 용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긴 머리와 더러운 청바지를 입은 히피 차림의 젊은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 만이 내가 당신을 친구로써 영접하며, 나와 같이 교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때는 우리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로 한다고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영접하는 것이 진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 우리 서로의 차이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융합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15:8)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다윗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구세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그 공회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15:9상)

나는 그 말씀을 성경의 말씀으로 뒷받침하는 바울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셋 내지 네 구절을 인용하여 뒷받침한다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두세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써 확증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구약성경의 말씀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몇몇 다른 구약의 성경에서 같은 주제의 내용의 말씀의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걸어 다니는 성경사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특별한 제목을 준다면, 그는 구약성경에 있는 같은 주제에 대한 적합한 성경 구절을 거침없이 인용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직접 오셨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예언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분의 사역이 미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려고 오셨으며,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그들이 받은 공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기록된바 이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15:9하)

사 42:6-7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가로되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15:10)

신명기 32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15:11)

시편 117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15:12)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구약성경의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모두 인용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말하기를,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15:13)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소망의 주제, 곧 모든 소망의 하나님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소망을 당신의 마음속에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진 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기쁨과 화평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과 정반대의 것이 기쁨과 화평인 것입니다. 소망의 결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기쁨과 화평입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 끝나야 합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기쁨이요, 화평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기쁨과 화평에 그들의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느낌에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 예, 자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줄 어떻게 압니까?’ 라고 질문하면. ‘오, 내 마음에 화평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내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기쁨이 없을 때에도 구원 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기쁨이나 화평을 믿는다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얻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러한 기쁨과 화평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양과를 많이 먹었더니, 월요일 아침에 일어날 때에 심한 두통과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할 때, 당신은 무엇이라 말할 것입니까? 오, 오늘은 나의 기분이 좋지 못하니, 내가 구원을 얻지 못했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까? 믿음이란 기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느낌에 따라 좌우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 하셨습니까?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분은 항상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의 나이에 이르면, 날씨도 나를 변하게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가 얼마나 오래 계속될지, 나의 무릎의 통증으로 예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씨를 나의 몸의 증상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

기분은 항상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나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확실한 그분의 말씀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분의 하신 말씀으로 완전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결과로 화평과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일간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얼치락 뒤치락 한 후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었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행 27:22-25) 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안심하라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고, 구원을 포기하고, 낙심하여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일으키며, 웃으면서 아마 선박 위를 걷게 하였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라고 말할 때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배 멀미 나서 죽겠는데, 무슨 말이요?’ 라고 대꾸했을지도 모릅니다. 14일간 밤낮으로 지중해에서 풍랑으로 인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들은 해와 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안심하세요!’ 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았습시다. 나는 주님의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라 믿습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었고, 그 말씀으로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있는 말씀 위에 기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들의 느끼는 감정에다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함정에 쉽게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한 느낌을 표현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 때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의 경험을 표현합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화평을 느꼈습니다. 내 평생에 이러한 화평을 경험한 적이 없었으니, 마치 더운 물을 나의 머리에 부어 온 몸으로 흘러내리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온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말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말하기를, '나도 그러한 경험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때에 마치 전기의 불이 오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구와 같이 반짝하며, 영광스러운 불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체험할 때에 느낀 것을 강조하여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느낌에 그 구원을 관련시키곤 합니다. 구원을 사람들의 느낌에 관련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9-10) 고 선언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 얻은 이유를 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변하지 않고, 나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다시금 나는 바울이 구원의 도리가 마음에 있음을 말한 사실이 좋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화평으로 당신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15:13)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현실화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모든 진리로 이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내게 보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나타나심에 대한 복된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충만히 가지게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히 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15:14)

형제들이여, 나는 당신들이 이러한 모든 선한 일과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15:15)

나는 당신들이 지식이 있어 서로 권하는 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당신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담대하게 편지로 쓰는 바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15:16)

바울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영접하신 것을 선언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영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사장직도 필요가 없고, 씻고 정결케 하는 의식의 법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당신을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15:17-18)

바울 사도는 이방인 가운데서 아주 능력이 있게 목회를 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한 것보다 더한 사역이었으니, 전한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로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썩, 주께서(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케 증거하시니라"(막 16:20)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고전 2:4) 라고 말했고, 로마서의 초반에서 선언하기를, 그가 그들에게 가서 신령한 선물을 나눠주어, 그들과 바울에게 서로 덕을 세우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목회는 말과 행함이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우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15:19)

바울의 복음 증거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그의 생활에 보이신 것은 놀라운 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였다” 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15:20)

나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갈보리 채플교회가 있는 주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을 보면, 흥미가 있는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동기를 묻고 싶은데, 내 자신이 그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 상상하지만, 그래도 자주 그들의 동기를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터 위에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방방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결여되어 있는 곳에서 갈보리 채플교회를 세워달라는 요청의 편지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갈보리 채플에서 몇 마일 되지 않는 직경의 거리에 가까이 교회를 세운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성령님께서 효과적으로 쓰시지 않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필요한 곳에 가서 쓰임 받기보다 마치 본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나 말씀이 없어 가까운 곳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잘못된 사람들에게 직사포를 쏘기 때문에, 그들은 나에게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갖은 자들을 모아서 새로운 교회를 본 교회 주위에 세웁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15:20)

나는 실제로 모든 교회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목회자들은 다른 곳에서 하는 목회와 똑같은 것이 아닌 다른 목회를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다양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임이 감정적이고 떠들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주 감정적이고 떠들썩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조용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분위기의 모임을 좋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분향과 촛불을 켜놓고, 정신적인 집중을 좋아하여 이러한 의식을 행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네(4) 교회가 조그마한 동네에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겨우 유지하는데 급급합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 목사가 굶는 형편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되어 함께 주의 일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좁은 데서 같은 것을 복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 아리조나주의 투산시에 남침례교회가 22개였는데, 지금은 37개가 되었습니다. 37명의 목사가 굶는 것보다 모두가 하나되어 강한 교회를 이뤄, 주의 일을 더욱 효과 있게 하는 편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존재하는 이유를 가져야만 하고, 다른 교회에서 얻을 수 없는 어떠한 것을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필요한 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칭찬 할만한 것이었습니다.

기록된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15:21)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바울의 이러한 태도가 마음에 듭니다.

나는 스펀전 목사의 저서를 읽기 좋아하는데, 스펀전은 바울과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그는 설교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예를 들곤 합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15:21-22)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가려고 했으나, 그 길이 여러 번 막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15:23)

이러한 말은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 지방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으니, 다른 지방으로 가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15:23-25)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갔다가, 마케도니아에 가서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거두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자기가 그곳에 가기 전에 미리 헌금을 거둬 놓으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곳에 있을 때에 헌금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며, 또한 헌금은 각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이 헌금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하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교회 초기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모두가 나눠서 먹고 사는 공동생활을 함으로 그 자금이 모두 소진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재산을 모두 팔았기 때문에, 자기 것이 없어진 상태의 어려움을 보고, 바울이 거둔 헌금을 그들에게 전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빛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15:25-27)

그들이 행한 일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빛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15:27)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그들에게 보답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29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15:28-29)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이 그곳에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하였고, 그의 생활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15:30)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피라미드 형식과 같은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목회하는 것을 통해서 복을 받으면, 그들이 또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로 더 많은 복음이 더욱 널리 전하여 지므로, 자신의 목회하는 것이 더욱 넓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 투산에 갔을 때, 전율을 느끼는 경험을 했는데, 화요일 밤의 모임은 약 천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한 사람씩 악수를 하는데, 그들의 하는 말이, '당신의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축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매일 아침마다 당신과 식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당신은 내가 출근할 때, 나와 함께 출근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목회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라는 격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전국적으로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베리아에 있는 교회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습니다. 비밀히 전해진 편지 내용에는 그들 가운데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어 방송설교를 듣고, 번역하여, 전해 줌으로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하기를, '시베리아에 있는 갈보리 채플 성도들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베리아에 있는 성도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떠한 느낌이 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함보다 그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편지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마음에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시베리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참된 신자는 은혜를 베풀어 준 자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베리아에 많은 신자들이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고 했습니다”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반응직하게 하고(15:31)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원치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을 항상 의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울이여,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여기에 머무는 동안 자제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제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한 두 사람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서원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서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내어주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당신이 좋은 유대인인줄 알 것입니다. 바울이여, 잘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그렇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그를 강제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에만 오면, 그가 말을 직격탄으로 날려 물의를 일으키므로 항상 바울을 환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제헌금을 그들에게 가지고 가면서 부탁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구제헌금과 나를 영접하도록 기도해 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33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려다 아멘(15:32-33)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을 가지고 오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바울이 아주 낙심한 어느날 밤에, 주께서 금하시는 일이지만,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들으리라는 확신에 찬 자신의 감정을 주님께 주장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여기를 떠나라. 그들이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긴 했으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잘못 보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만 주신다면, 내가 그들의 배경을 알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을 내가 잘 압니다. 나도 한 때는 그들과 같은 자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말할 기회만 얻는다면, 설득해 보겠습니다. 주님!’ 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바울에게 그 기회가 찾아 왔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두 사람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며, 그들을 위해 돈도 지불했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몇 명의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바로 이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단지 믿기만 하라고 가르친 자이다’ 라고 유대인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붙잡고, 죽도록 때렸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로마 백부장인 루시우스가 바울을 구출하여 성전을 향하여 지키는 안토니오 망대가 있는 곳으로 끌어 왔습니다. 그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잠깐 주십시오!’ 라고 하자, 바울에게는 아주 큰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때 로마 병정이 말하기를, ‘당신 헬라 말을 하냐요?’ 라고 의아스럽게 물었습니다. 바울이, ‘물론이오!’ 라고 대답했더니, 로마 병정은, ‘나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인줄 알았소!’라고 반응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로마 병정이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라고 하며,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바울은 연설하기를, “부형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큰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바울은, “당신들은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알지 않습니까? 나도 여기에 여러분들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이 열심히 많이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옥에 가두라는 편지와 권세를 받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과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기로, 내가 말하기를, ‘주여 뉘시오니이까? 내가 주를 섬기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에 주께서 말씀 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너를 이방으로 보내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방이란 말을 듣는 순간 큰 소동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공중에 티끌을 날리며, ‘이놈을 죽여라! 이놈을 죽여라’ 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때에 바울이 히브리 말로 했기 때문에, 로마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가 찢어 지기 전에, 안으로 끌어 드리라’ 고 말하고, ‘도대체 당신이 무슨 말을 했기에, 저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며 난동을 부리는가?’ 라고 묻고, 매를 치라고 명하며,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매를 치는 것이 로마 관습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매를 치는 자가 들어가서 상관에게 하는 말이,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합디다!’ 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백부장이 밖으로 나와서 묻는 말이, ‘네가 로마 시민이냐?’ 라고 말할 때에, 바울이 대답하기를, ‘네, 그렇습니다.’ 또 그가 말하기를, ‘나도 시민이요,

나는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는데!’ 라고 말하고, ‘돈을 많이 지불했소!’ 라고 반응했습니다. 다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날 때부터 로마시민이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소원했던 일을 한번 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폭동으로 끝났습니다. 바울이 기대했던 영적 부흥집회가 아니라, 실컷 매를 맞고, 아무 열매도 없이 겨우 목숨을 건지는 형편에 이르렀으니, 바울은 용기가 더욱 저하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용기를 내라” 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다면, 틀림없이 용기가 아주 저하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나를 여기서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위하여 증거해야 할지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로마라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주님의 뜻이라면, 로마에 가기를 심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선언하시기를, “네가 로마로 가는 것이 나의 뜻이니 가라” 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향하여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약 2년간 가이사라에서 지체하기는 했으나, 결국은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의 로마 여정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여행 여비와 숙식은 로마 정부에서 부담하였으며,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 말타라는 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에 가기 전에, 말타라는 섬의 추장과 로마로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고 한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